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연장 불필요, 관세율 통보 서한 발송 가능
 - 미국 6월 고용보고서, 신규 고용 소폭 감소 예상. 금리 경로 전망은 유지될 가능성
 - ECB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전망.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할 필요
 - 중국 인민은행, 상황에 따른 정책 시행. 5월 공업부문 기업이익은 전년비 감소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중동 갈등 완화, 상호관세 유예 서한 연장 기대 등이 영향
 - 주가 상승[+3.4%], 달러화 약세[-1.3%], 금리 하락[-10bp]
 - 추가: 미국 S&P500지수는 무역협상 우려 완화, 기술주 강세 등으로 사상 최고치
유로 Stoxx600지수는 중동 사태 개선 등으로 1.3%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차기 연준 의장 조기 지명 가능성,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7%, 1.0%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하 기대, 일부 주요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하락
독일은 국방비 증액 계획, 양호한 6월 Ifo 경기기대지수 등으로 8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0.9% 하락, 한국 CDS 하락

		6/27일	6/20일	전주말대비			6/27일	6/20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6,173.1	5,967.8	+3.44%	국채 금리 10y	미국	4.28%	4.38%	-10bp
	유럽	543.63	536.53	+1.32%		독일	2.59%	2.52%	+8bp
	중국	3,424.2	3,359.9	+1.91%		영국	4.50%	4.54%	-3bp
	일본	40,151	38,403	+4.55%	CDS 5y	한국	26bp	28bp	-2bp
	한국	3,055.9	3,021.8	+1.13%		중국	51bp	54bp	-3bp
환율	달러지수	97.40	98.71	-1.32%	위험 지표	EMBI+	371	378	-7bp
	유로화	1.1718	1.1523	+1.69%		VIX	16.32	20.62	-20.85%
	엔화	144.65	146.09	+1.00%		WTI유	65.52	74.93	-12.56%
	위안화	7.1726	7.1815	+0.12%	원자재	구리	506.9	483.4	+4.86%
	원화	1,361.3	1,374.0	+0.93%		금	3,274.3	3,368.4	-2.7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연장 불필요. 관세율 통보 서한 발송 가능

-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혹은 그 전에 서한을 보내 교역국은 미국에서의 사업을 위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히겠다고 언급. 또한 상호관세 기한 연장을 원하지 않으며, 단순히 관세(10%~50%)가 부과되었다는 편지를 보내면 된다고 언급. 이는 만료 시한 전에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는 의미
- 다만 자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수도, 혹은 더 줄일 수도 있다고 첨언. 최근 베센트 재무장관은 9/1일까지 관세협상을 마무리 짓기 원한다고 발언. 한국, 일본 등에 낮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의 경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빅테크 규제가 관세협상의 대상이라고 지적. 캐나다와의 무역협상을 중단하면서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EU의 행태를 모방하고 있는데, EU는 해당 사안을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 EU는 미국과 무역협상에 주력하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보복에 나서겠다는 입장
- 한편, G7은 공동성명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에서 미국 기업을 제외. 이는 국제 조세체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즉, 미국처럼 자국의 법인세가 이미 글로벌 최저한세 이상인 경우 글로벌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을 허용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6월 고용보고서, 신규 고용 소폭 감소 예상. 금리 경로 전망은 유지될 가능성

- 7/3(목) 6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될 예정. 시장에서는 전월과 비교하여 6월 신규 취업자의 소폭 감소(13.9만→12.9만), 실업률 보합(4.2%→4.2%) 등을 전망. 신규 고용이 전월에 비해 줄어들 수 있으나 관세 영향 불확실성 등으로 연준의 금리 경로 전망은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한편 다음 주 ECB 연례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연준 파월 의장과 ECB 라가르드 총재에게 발언 기회가 제공될 예정. 다만,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등으로 파월 의장은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 조정에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평가

■ 미국 상원, 트럼프 감세법안의 상정을 승인. 통과 가능성 높아진 것으로 평가

- 트럼프 감세법안의 상정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이를 가결. 향후 해당 법안에 대한 본격 심사가 시작되는데,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의 7/4일 이전 통과를 강조

■ BofA, 미국 증시 고평가 위험 증가. Goldman Sachs는 구리 공급 부족 지적

- BofA의 하트넷 스트래티지스트는 미국 증시가 하반기 감세 및 금리인하로 일부 주식에서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한편, Goldman Sachs는 미국의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이전에 수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재고가 감소하고, 이에 구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

■ ECB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예상.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할 필요

- 권도스 부총재는 인플레이션(연율 2%)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 시장에서는 이를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의 금리동결 지지를 의미한다고 분석. 한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인 뉓 위원 역시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당분간은 금리 유지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중국 인민은행, 상황에 따른 정책을 시행. 5월 공업부문 기업이익은 전년비 감소

- 분기 통화정책회의 개요를 공개. 이에 따르면, 글로벌 성장 둔화 및 무역장벽 강화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 디플레이션 심화 등에 맞춰 통화정책의 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 한편, 중국의 5월 공업부문 기업이익은 전년동월비 9.1% 감소.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미국의 무역 압박 등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추정

■ 러시아 푸틴, OPEC+는 여름철 석유 수요 증가에 맞춰 증산에 나설 전망

- 푸틴 대통령은 금년 여름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OPEC+도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발언. 특히 경제가 성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어 원유 및 석유 제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6/30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시카고 연은 및 애틀랜타 연은 총재 발언, 6월 시카고 PMI
- 독일 6월 소비자물가, 중국 6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무역전쟁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으나 소비자 지출 약화 등은 우려 - WSI (The U.S. Economy Pushes Through the Trade War)

- S&P500 지수는 트럼프 관세, 이민자 추방, 감세법안 우려, 이란 공격 등에도 사상 최고치. 이는 관세 인하 기대,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 일정 수준의 기업 투자 지속 등에 기인. 특히, 관세 부문에서 필요 시 트럼프가 양보할 것이라는 확신이 증가
- 아울러, 최근 기업실적 전망 개선(FactSet)과 투자자의 금리인하 기대 증폭 등도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인플레이션 반영한 1/4분기 소비 증가율 둔화(연율 1.8%→0.5%) 및 2/4분기까지의 해당 추세 지속은 우려 요인. 또한, 노동시장 약화 및 여전한 관세 불확실성 등도 경계할 사안

■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 등으로 '17년 이후 최장 기간 이어질 전망 - 블룸버그 (Euro Poised for Best Run Since 2017 as Dollar's Slump Picks Up)

- 유로화 가치는 6월에 3% 이상 오르며 6개월 연속 상승. 이는 연준의 연내 최소 2회 금리인하 기대, ECB 양적완화 종료 시점 근접 가능성 등이 영향. 아울러 트럼프의 비둘기파 성향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 이루어질 경우 올해 이미 9% 급락한 달러화 가치는 9%의 추가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Monex)
- 또한, 안전자산 지위 약화로 인한 달러화 비관론, 유럽 정책 입안자들의 유로화 위상 강화 의지 역시 유로화 강세에 기여. 아울러 미국 5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의 예상치 상회 및 소비자 지출 둔화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여 달러화에 부정적. 이에 유로화의 강세 기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

■ 미국 주가, 다양한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상승세 지속할 가능성 - 블룸버그 (Stocks Are Defying the Naysayers. They Can Keep Going.)

- 미국 주요 주가지수는 4월 관세 충격, 이란 갈등, 고용 둔화 등의 꼬리 위험(tail risk) 속에서 사상 최고치. 그리고 '24년 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당시에 중국 성장 우려, 하마스-이스라엘 분쟁 등으로 회의적 시각이 있었으나, 이후 연말까지 23% 추가 상승. 이에 지금은 오히려 추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을 주목할 필요
- 먼저 관세의 제한적 물가 영향과 연준의 금리인하로 인한 경기 연착륙 현실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AI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기업 이익 증가도 가능. 은행자본 규제 완화는 은행주 강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인. 이에 더해 통상적으로 주가의 사상 최고가 달성은 추가 상승을 유도

■ 연준 준비금 이자 폐지론, 재정절감 효과 없이 통화정책 능력만 악화 - 블룸버그

(Ted Cruz has a weird idea about the Federal Reserve)

- 연준의 준비금 이자 지급 권한은 단기금리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은행들의 유동성 확보를 장려하여 연준의 경제지원과 통화정책 운영 능력을 강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를 폐지하여 1조 달러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이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 준비금 이자 없이 단기금리를 통제하려면 대차대조표 축소가 불가피. 그리고 이로 인해 연준의 이자수익도 감소하므로 재정절감과 납세자 보호 효과는 미미
- 또한 대차대조표가 축소될 경우, 단기금리 통제를 위해 복잡한 공개시장운영이 필요해지고, 위기 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능력도 제한. 의회는 재정절감 효과도 없고 연준의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훼손하는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철회할 필요

■ 주요국 고용주, 이민 통제 등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대비 요구 - 블룸버그

(The Golden Age for Employers Is Ending)

■ 미국 트럼프의 연준 불만,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자신이 원인을 제공 - Financial Times

(The US Federal Reserve's Trump problem)

■ 미국 증시 투자자, 향후에는 저가매수 전략에 신중할 필요 - Financial Times

(Why investors should be cautious of buy-the-dip strategies)

■ 이란, 정권 약화에도 향후 수년간 걸프만 안정에 부정적 영향 초래할 소지 - Financial Times

(The Iran threat will haunt the Gulf for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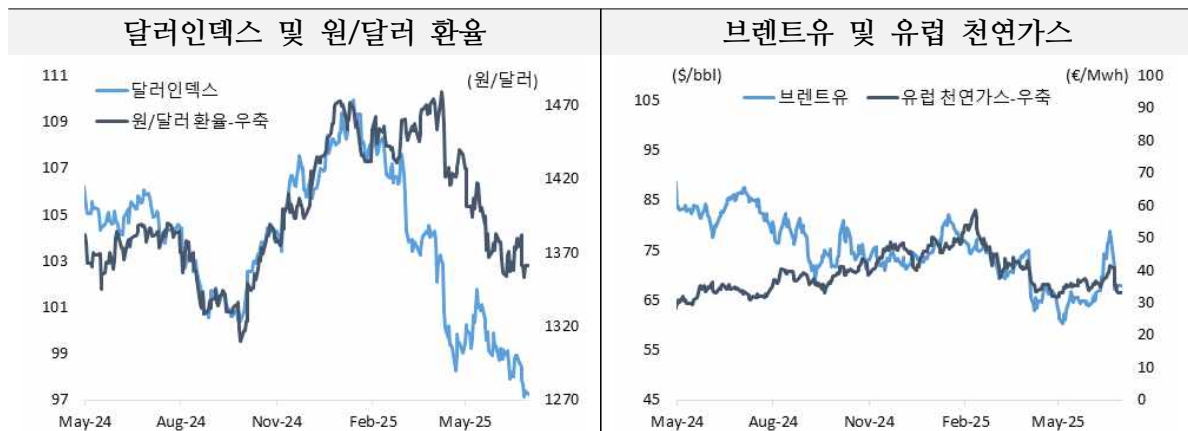
■ 미국 트럼프 관세와 원조 삭감, 최빈국에 이중 타격으로 경제 회복 위협 - Financial Times

(Trump's tariff war and aid cuts threaten poorest nations' recovery)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